

썸? 그린 라이트? 영어인듯 영어 아닌 영어 같은 한국어!

여러분! 벚꽃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이 왔습니다! 오늘은 봄 특집으로 달달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. 상큼달달한 멜로 드라마를 보면 자주 ‘썸 타다’ 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‘썸’은 영어 ‘something’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 ‘무엇인가’가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. 그리고 ‘타다’는 어떤 분위기나 감정을 느낄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‘썸 타다’는 ‘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연애와 비슷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상태’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

‘타다’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같이 신나게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비트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면 ‘리듬을 타고 있다’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맞아 날씨가 쌀쌀해진 탓에 자신의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(옆에 아무도 없다는) 사실이 조금 우울하게 느껴질 때 ‘가을을 타다’고 말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‘타다’는 주위의 분위기나 감정 등에 영향을 받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
‘그린 라이트’라는 표현도 비슷한 상황을 나타냅니다. 앞에서 살펴본 썸 타는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 된다는 과란불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. 인터넷에서는 그린 라이트의 기준으로 ‘썸 타는 사람하고 둘이서만 밥 먹으면 그린 라이트인가요?’ 또는 ‘상대가 3분 이내로 카톡 답장을 하면 그린 라이트인가요?’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만약 그린 라이트라면 둘의 관계를 더 진전시켜도 된다는 뜻이니까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? 일본어의 ‘脈あり’와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어떠셨나요? 오늘은 연인이 되기까지의 두근두근 상큼달달한 과정을 한국어로 어떻게

표현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린 라이트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마음을 잘 담은 ‘주시크(Joosiq)의 Yellow’라는 노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후렴구에 등장하는 ‘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표현을 해도 대답은 모호해 네 마음은 불안한 노란색 같아’ 라는 가사를 보면 그린 라이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노란색으로 비유해서 고민과 기다림이 섞여 있는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꼭 한 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!

여러분 모두 즐거운 봄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!

최은경(나가사키외국어대학교)

<歌を聴いてみたい方はこちら！>

주시크 (Joosiq) - Yellow (Feat. LUNCH) https://youtu.be/c_P98etpbmw